

# 모의수능 맞춰 느슨한 공부 낭패... 난이도 높여라



6월 치러진 모의수능에 비해 올해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실제 난이도가 모의 수능과 같을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수험생이 항상 고전하는 수능의 경우 난이도를 높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리 시험범위에 추가된 통계, 공간도형과 벡터, 적분법 등은 수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념정리, 유형분석, 실전연습 등 3단계 학습법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개념정리·유형분석·실전연습 3단계 학습 바람직

### 수리 '가'형 통계 미적분 응용문제 출제 가능성 커

평가와 수능에서 난이도가 크게 상승해 수험생들이 고전했을 때문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쉬운 수능으로 원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도 상대적인 위치까지 상승하기는 어렵다. 수능이 쉬워지면 본인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도 쉽고, 성적도 다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쉬운 모의 수능을 읽고 난이도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기출문제 출제유형 익히야=수리영역 학습의 관건은 올해 새로 추가된 단원의 효과적인 학습 여부다. 다수 학생이 모의평가 출제범위에 맞지 학습한다. 그러나 이런 학습은 수리영역 전 범위가 출제되는 9월 모의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앞 단원들은 자주 복습하는 반면, 뒤 부분의 복습을 게을리

한 결과다.

특히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지 않은 단원들은 수험생 대부분이 고전하는 영역이다.

수리 가, 나형에서 출제되는 통계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한다. 개념 이해가 쉽지 않은 탓이다. 또 변형문제를 같은 유형이라고 오관, 공부할 때 뒤로 미루거나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통계단원 학습의 지름길은 꼼꼼히 개념을 정리하고 풀이과정을 세우는 것이다. 문제를 파고 들면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 유형도 정형화돼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 가형의 공간도형과 벡터, 수리 나형의 적분법도 마찬가지다. 이 단원은 개념이 어렵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만큼 자신의 실력을 먼저 점검한 후 학습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후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풀어 출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념 파악 학습 관건=6월 모의평가에서 새로 추가된 단원의 경우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수리 나형에 추가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단원은 수리 가형의 기출문제의 유형과 유사했다. EBS교재로 개념을 충실히 다지면서 수리 가형에서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풀어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응용·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수리 가형의 경우 통계 단원에서 미적분을 활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으나 오는 9월 모의평가에서는 통합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 가형의 경우 EBS교재 등을 풀 때 개념을 파악한 뒤 응용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과정 이해에 초점을 맞춰 학습해야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모의평가 난이도 맹신 금물=6월 모의평가의 경우 쉽게 출제돼 주요 영역 만점자가 1% 이상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등급이 뒤바뀌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수능도 현재의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지난해 수리영역의 경우 6월 모의평가에 비해 9월 모의

## 전남대 2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

전남대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에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학을 선정, 전남대를 포함한 30개 대학을 올해 사업 대상자로 발표했다.

특히 교과부는 2010년 지원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원대학과 지원금을 결정, 전남대는 최상위 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국고 지원금을 2억원 정도 더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올해 총 6

억9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이는 지난해 지원금 5억 5000만원보다 37.6% 증가한 것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전남대는 지난해 입학전형실을 독립시키고 입학사정관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를 잘 살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입전형의 선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조선대 김일태 교수 '만화애니메이션기초' 출간

김일태 조선대 교수(미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가 공동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학교 만화애니메이션 국정교과서인 '만화애니메이션기초'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출간됐다.

김 교수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집필해 출간된 '만화애니메이션기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전반에 걸친 기법과 역사 등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교과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현대의 디지털 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의 상황 속에 문화예술산업의 주요 장르로 주목

을 받고 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일선 산업현장에 대한 학문적 토대와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어서 이번에 출판된 교과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꿈나무들의 지침서로서 시대에 적절한 연구결과를 평가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만화애니메이션 용어표준화사업을 완수했고, 2008년 편찬한 만화애니메이션사전은 오는 10월부터 네이버 지식사전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호남대 2012학년 신설학과 '주목'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문화산업경영학과와 소방학과, 상담학과, 언어치료학과를 신설하고 2012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경찰법행정학부를 경찰학과·법학과·행정학과로, 조리영양학부를 조리학과·식품영양학과로 분리해 학과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다매체공연영상학과를 미디어영상공연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해 201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호남대는 최근 교무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문화산업경영학과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 R&D특구, 3D 산업 등을 이끌어갈 '문화산업전문프로듀서' 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교육과정은 기획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제작, 문화경영 및 마케팅, 산학연계 인턴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인 문화산업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소방학과는 급증하고 있는 소방안전 인재 수요에 부응해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업체에서 설계·시공·점검·관리·건출물방화관리 분야 등에 종사할 소방인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소방공무원,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교육사,

신설	
문화산업경영학과, 소방학과, 상담학과, 언어치료학과	
분리	
경찰법행정학부	조리영양학부
경찰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로 진출 할 수 있다.

상담학과는 심리학 이론을 응용한 상담학 및 심리학 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인재를 양성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인 직업상담사(1, 2급), 산업인력공단안심심사사, 사회조사분석사(1,2급), 청년지도사(1,2급) 청소년상담사(1,2급),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으로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언어치료학과는 인구 10% 내외의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는데다, 다문화사회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학문분야로 인간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연구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언어치료분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서강정보대학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27일 대학 실습실에서 2학기에 개최되는 각종 국내 외 요리대회 참가를 위해 서양요리실습을 하고 있다.

## 서강정보대, 7월부터 '서영대학'으로

서강정보대학이 7월1일부터 '서영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다.

서강정보대학(총장 김정수)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서영대학'으로 교명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교명이 새롭게 바뀐 서영대학은 1978년 서강실업전문대학(설립자 김경식 박사)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92년 서강전문대학을 거쳐 1998년 서강정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해왔다.

김정수 총장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인 제2차학 비전 선언에 따라 수도권 파주에 2013년부터 제2캠퍼스를 개교한다"며 "이에 따른 전국적 의미의 교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영대학은 상서로움이 가득한 가운데 오래도록 먼 미래까지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서강정보대학은 그동안 4만 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23개 학과 48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송원대학, 필리핀 국립대서 영어교육 문화체험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지난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4주 일정으로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마인드의 고양과 영구사역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 해외영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기관은 필리핀 국립대학 클락 캠퍼스와 NK연수원이며, 비용 전액을 송원대학교에서 지원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30명의 학생들은 7대 1의 여학생수 장학생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되



었다.

여학생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4주간의 영어몰입교육과 함께 필리핀 문화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아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번만본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